

기호와 진실

—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¹⁾

강 영 안

1. 서양 중세와 에코의 소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은 학자가 쓴 소설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베스트 셀러가 된 책이다.²⁾ 수많은 외국어로 번역되었고 수천만 부가 팔렸다. 우리말로도 두 가지 종류의 번역이 나와 있다(『열린책들』의 이윤기 번역과 『우신사』의 이동진 번역). 그 그리스도의 가난, 이단의 출현, 교황권과 왕권,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신학적 논쟁뿐만 아니라 보편과 개체, 실재와 이름에 관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까닭은 무엇인가? 『장미의 이름』은 1327년 11월 하순 이탈리아 북부 지방의 어느 수도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에코 소설의 성공은 유럽과 미국에서 일고 있는 중세 선풍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세는 에코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인에게서는 자신들의 ‘유년기’에 해당한다. 유럽 언어, 상업 도시,

1) 이 글은 1994년 6월 13일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서강대 철학과 대학원 서동욱군이 녹취 정리한 원고를 다시 수정한 것이다.

2) Umberto Eco, *Il nome della rosa* (Milano: Pompianti, 1980).

자본주의 경제(은행, 수표, 이자 제도), 민족 국가, 노동조합, 풍차, 편자, 선박의 방향키, 복식 부기, 안경, 그리고 인쇄술은 중세의 산물이고 이것으로 인해 근대 유럽과 미국 문화가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유년 시절을 찾아 고향을 그리워하듯 유럽인과 미국인은 중세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³⁾ 이와 같은 경향과 맞물려 에코의 소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에코는 뛰어난 이야기꾼의 솜씨를 보여준다. 현대의 작가들은 대개 선형적 내러티브 구조를 혐오하지만 에코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물 흐르듯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놓았다. 이 소설은 영화와 같은 요소를 갖추고 있다. 성당과 숙소, 도서관과 부엌, 식물원과 마구간 등이 동일한 공간 속에 배치된 수도원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이 진행된다. 더욱이 탐정소설이란 형식을 통해 에코의 이야기 솜씨는 한결 살아난다. 수도원 안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바스커빌의 윌리엄이 수사를 책임진다. 윌리엄은 조수 앳조를 데리고 범인을 찾아나서고 흔적 읽기, 암호 풀이, 미로 찾기 등을 통해 두 사람은 마침내 범인을 찾아낸다. 프란체스코회 수사 신부 윌리엄은 경험과 학식이 뛰어나고 자연철학 정신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 끝없는 호기심을 가진 '현대인'으로 그려져 있는 반면, 앳조는 베네딕도회(분도회) 수사로 당시의 교회, 정치, 철학과 신학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고 소박한 귀족 출신 청년으로 그려져 있다(『장미의 이름』은 고향 멜크의 수도원에서 앳조가 지난 일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건마다, 일마다 윌리엄은 앳조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고 이를 통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울 수

3) 에코의 작품 자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U. Eco, *Travels in Hyperreality* (San Diego/New York/London: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6)에 실린 "Dreaming of the Middle Ages"(pp. 61~72)란 글 참조.

있다.⁴⁾ 윌리엄과 앓조의 관계를 사람들이 설록 홈스와 왓슨에 비교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⁵⁾

둘째, 에코의 소설은 역사소설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에코는 중세 사회와 문화, 중세인의 세계관을 탁월하게 그려낸다. 1314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루이) 선출, 2년 뒤 카호르의 자크의 아비뇽에서의 교황 즉위(요한 22세), 1322년 페루시아의 프란체스코 수도회 총회, 1322년 프란체스코를 배격하는 요한의 칙령(‘제반 남설에 관하여’) 등이 이 소설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다. 프란체스코회가 교황청에 등을 돌리고 황제파를 옹호하게 된 소지가 되었던 그리스도의 가난에 관한 논쟁이 다섯째 날 수도원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다.⁶⁾ 가난한 자를 옹호한 운동 가운데 돌치노파도 역사적 배경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이단으로 몰려 수도원 마당에서 화형된 레미지오와 살바토레는 프라

4) 에코는 앓조를 등장시킨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앓조는 나에게 대단히 중요했다. 처음부터 나는 한 사춘기 소년의 입을 통해 이야기(그 미스터리, 정치적·신학적, 심지어는 이러한 사건이 지니는 이중적인 의미까지)를 하게 하고 싶었다. 이때 내가 말하는 소년은 문제의 사건을 경험하고 이것을 사진처럼 그려낼 수는 있되,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해야 한다. [……] 말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언어를 통해 독자들에게 이것을 이해하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U. Eco, *Postscript to the Name of the Rose* (San Diego/New York/London: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4), pp. 33~34. 움베르토 에코, 이윤기 옮김, 『나는 『장미의 이름』을 이렇게 썼다』(서울: 열린책들, 1992), pp. 53~54.

5) 서영채, 「이성 중심주의와 장미——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읽기」, 『세계의 문학』 63호(1992년 봄), pp. 328~47; 김성곤,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던 리얼리즘——『장미의 이름』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 미국 소설』(서울: 열음사, 1990), pp. 165~97; Samuel Jsseling, “De naam van de roos: een boek over boeken,” in P. Allegart & I. Vanmarcke, *Tussen poussin en puntbelm* (Lueven/Amersfort: Acco, 1987), pp. 167~80 참조.

6) 이동진 역, 『장미의 이름으로』(서울: 우신사, 1986), p. 337 이하. 그리스도의 가난에 관한 윌리엄의 입장은 p. 357에 잘 나타나 있다.

돌치노의 추종자들이었다.⁷⁾ 에코는 중세 전문 연구가답게 중세 종교와 사회 문제를 매우 정확하고 흥미롭게 그려주고 있다. 중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지만(여기에는 기사와 기사도 정신, 장원과 영주가 등장하지 않는다) 교회와 정치, 사랑, 삶과 죽음, 수도원 생활, 그들의 세계관에 관한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준다. 최근 우리 곁에서 유행했던 『소설 동의보감』이나 『소설 토정비결』도 역사소설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론서를 통하지 않고서 소설을 통해 사람들은 한의학과 풍수 사상, 음양오행의 기본에 대한 지적 욕구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었다.

셋째, 이 책은 하나의 사상소설이다. 이 가운데는 보편과 개체, 실재와 이름, 기호와 의미, 지식과 권력, 열정과 테러리즘에 관한 논의가 수없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논의는 현재의 문화 상황과 정치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현실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을 만큼 팽팽하고 긴장된 어조를 담고 있다. 그의 관심은 추리소설이 대개 그렇듯 사건을 추적하고 해결하는 일에 있지 않다. 오히려 자신의 전공인 기호학 이론을 이용하여 현시대 문제를 중세라는 배경을 통해 해학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 에코의 의도가 아니었는가 의심해보고 싶을 정도로 『장미의 이름』은 학자의 소설이고, 학자의 사상적 편력과 관심이 반영된 사상소설이다. 『장미의 이름』은 사상소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가 하면, 역사소설이기 때문에 중세라는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눈앞에 그려볼 수 있고, 탐정소설이기 때문에 (긴장으로 인하여) 오히려 긴장을 풀 수 있다.⁸⁾

7) 돌치노파에 관해서는 pp. 226, 229, 231 참조.

8) 1968년 발레 수도사가 1842년 파리의 수르스 수도원에서 펴낸 『멜크의 수도사 아드소의 수서본』을 우연히 입수한 뒤 그것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하게 되었다는 에코의 말에서 '1968년'이란 해를 김성곤 교수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

2. 왜 탐정소설인가?

그런데 에코는 왜 굳이 탐정소설을 썼는가? 그는 자신의 소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소설을 쓰면서 바라던 독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물론, 나의 장난에 함께 놀아나줄 공범자이다. 나는 철저하게 중세적이고자 했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것처럼 중세를 살고자 했다. [……] 일단 통과 의례를 끝마치고 나면 나의 ‘밥’ (내가 만든 텍스트의 밥이라는 편이 더 낫겠다) 이 되는 독자, 텍스트가 주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독자를 창조하고자 했다.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변모의 경험을 뜻한다. 독자들은, 섹스가 있고, 마지막 대목에서 범인이 드러나고, 그러면서도 액션이 철철 넘치는 범죄 소설의 구성을 원한다. 그러나 이런 소설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산송장과 악몽 같은 미궁, 범죄에 대한 죄 없는 회오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낱아빠진 범죄 소설을 읽었다는 사실 자체를 창피하게 여긴다. 그래? 그렇다면 라틴식 고전을 선사할 수밖에? [……]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전율하게 할 만한 일(말하자면 형이상학적인 전율을 느끼게 할 만한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무수한 플롯 중에서) 가장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구조, 즉 탐정소설의 구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⁹⁾

탐정소설과 철학은 사실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고 에코는 생각한

다. 1968년은 프예블로 복한 납치, 마틴 루터 킹 암살, 파리의 학생 시위로 367명 부상, 로버트 케네디 암살 사건, 프라하의 봄 좌절 등이 있었던 해이다. 김성곤, 앞의 글, p. 169 참조.

9) U. Eco, *Postscript to the Name of the Rose*, pp. 50~53(『나는 『장미의 이름』을 이렇게 썼다』, pp. 77~78).

다. 철학과 탐정소설은 다 같이 “누가 범인인가? *Who is guilty?*” 라고 묻는다.¹⁰⁾ 끝내 범인을 밝혀내는 것이 탐정소설의 목적이라면 존재 근거, 원인, 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철학의 목적이다. 이 물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에코에 따르면 미로를 찾아가는 것과 같다.¹¹⁾ 소설 중의 도서관의 미로는 일종의 매너리스트의 미로이고, 윌리엄이 경험하는 미로는 리조메 미로의 구조를 가진 것이었다고 에코는 밝히고 있다. 사람이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는 미로이긴 하나 끝내 완벽하게 구성할 수 없는 미로라는 것이다. 문제는, 결국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는가, 질서가 있다면 그것을 궁극적으로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것의 흔적과 징표(기호)가 있다면, 그것에 대응하는 세계를 결국에는 발견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만일 어떤 것의 흔적과 징표(기호)가 또 다른 것의 흔적과 징표에 불과하고 이것이 만일 무한 소급된다면 세계에 대한 진리는 결코 밝혀질 수 없다.

중세 시대는 ‘최상의 형이상학적 시대’(알로이스 템프)이자 동시에 ‘기호학적’ 시대였다. 그 어느 때보다 조형 예술이 발달했고 상징과 그림으로 가득찬 시대였다. 이 세계 전체가 곧 하나의 상징이요 기호요 징표로 보였다.

착한 앓조야. 여행하는 동안 내내 가르친 게 무엇이었지? 위대한 교과서처럼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가지고 증거를 포착하라고 하지 않았나? 인술리스의 알라누스가 이렇게 말했다. “온 세상 만물이란 마치 책과 그림처럼 우리에게 거울로 반사된다.” 알라누스가 생각한 것

10) 에코, 같은 책, p. 54(번역판 pp. 79~80).

11) 미로에는 중심에 이르는 그리스적 미로(테세우스의 미로)가 있는가 하면, 수많은 가지가 있되 오직 하나의 출구만 있는 매너리스트의 미로가 있고, 중심도 없고 주변도 없고, 출구도 없는 리조메(뿌리)의 구조를 가진 미로가 있다. 에코, 같은 책, pp. 54~58(번역판, pp. 80~83).

은 하느님이 세상 만물을 통해 무수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관해 이야기해준다는 사실이었지.

그런데 바로 이 중세는 형이상학적 진리와 기호학적 상대성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한 대립을 보인 시대였다. 그러한 대결은 소설 가운데서는 호르게와 윌리엄의 대결로 나타난다. 호르게는 형이상학적 진리를 극단적으로 추구한 사람이었다면 윌리엄은 기호학적 상대성을 추구하면서 상식과 합리성에 기대 사람이다. 기호학적 상대성과 형이상학적 진리 사이의 갈등은 철학사에서 흔히 실재론과 유명론의 논쟁, 또는 보편주의와 개별주의의 논쟁으로 그려지고 있다.

3. 인용과 상호 텍스트성

이제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 나타난 특징을 이야기해보자. 『장미의 이름』은 무엇보다 수많은 텍스트의 직물로 짜여 있다. 그래서 『장미의 이름』의 2/3가 인용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¹²⁾ 그 가운데에는 직접적으로 인용된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인용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었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로저 베이컨,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등 수많은 중세인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가 하면 중세 기호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생 빅토르의 휴고(책에서는 생 빅토르의 휴즈라고 되어 있다)의 말이 직접 등장한다. 등장인물 가운데는 실존했던 인물이 여럿 있다. 예컨대 프란체스코 총장 케세나의 미카엘, 아비뇽의 교황 요한 22세, 그리고 다섯째 날 수도원에서 열린 중

12) S. Jsseling, 앞의 글, p. 170.

교 재판에 등장하는 베르나르도 귀(구이도)는 그 당시의 악명 높았던 이단 심문관이었다. 파두아의 마르실리우스, 몬테팔코의 클라라, 프라 돌치노 등은 모두 실존 인물이다.

하지만 수도원과 수도원에서 일어난 사건은 허구적이다. 아보 원장, 윌리엄 수사, 조수 앓조, 부르고스의 호르게는 모두 허구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들조차도 실존했던 중세 인물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보 원장은 파리 근처 생 드니 수도원의 원장을 지냈던 수제 드 클리니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수도원이었다. 수제 드 클리니는 수도원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던 사람이었다. 부르고스의 호르게는 12세기의 베르나르 드 클레르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베르나르 드 클레르보는 매우 금욕주의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주네브 호수를 지날 때, 눈가리개로 눈을 가렸다는 일화가 있다. 자연이 주는 감각적인 미에 현혹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이 일화는 작품 중의 호르게가 장님이란 사실과 관련지어볼 수 있다. 베르나르 드 클레르보는 현세적·지상적·세속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토록 금욕적인 사람의 상징 또는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수사는 책 안에서는 오캄의 친구로 나온다. 윌리엄은 오캄이나 로저 베이컨 혹은 둔스 스코투스와 같이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해 나아가는 과학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한다.

텍스트를 인용할 때, 사람을 거론할 때 에코의 뛰어난 유머 감각이 드러나는 곳이 몇 군데 있다. 예컨대 『사랑의 저울』을 쓴 저자로 나오는 ‘블로냐의 막시무스’는 블로냐 대학의 에코의 동료(마시모)로 알려져 있다.¹³⁾ 마시모는 고대와 중세의 사랑에 관한 글귀를 수집하여 책으로 엮은 사람으로 고중세의 에로티시즘 문학 전문가이다. 『장미의 이름』에는 비트겐슈타인도 등장한다. 그런데

13) 『장미의 이름』, p. 324.

에코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 *Tractatus Logicophilosophico*』의 한 구절(“사다리는 오르고 나면 곧장 던져버려야 한다”)을 인용하면서 이 말을 슬쩍 중세 독일어로 바꾸어놓는다. 그러면서 “독일의 어떤 신비가의 글에 나오는데 무슨 책인지 잊어버렸어”라고 능청을 부린다.¹⁴⁾

『장미의 이름』은 이렇게 수많은 인용(텍스트, 역사적 인물, 사건)으로 구성된 소설이고 텍스트의 상호 텍스트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웃음에 관한 논쟁, 책에 관한 이론은 에른스트 로베르 쿠르티우스의 『유럽 문학과 라틴 중세』에서 찾아볼 수 있고, 멜크의 수도원에 앉아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마지막 장면은 거의 다 요한 호이징가의 『중세의 가을』에서 자세하게 읽을 수 있다.¹⁵⁾ 그리고 사건의 추적과 도서관의 미로를 찾아가는 실마리로 「요한 계시록」이 열쇠 구실을 하고 있다. 에코는 “모든 텍스트는 인용의 모자이크로 구성된다. 모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의 흡수 및 변형이다. 그러므로 이제 ‘상호 주관성’ 대신 ‘상호 텍스트성’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크리스테바의 말을 소설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¹⁶⁾ 그런데 그토록 많은 인용과 작은 텍스트 조각들을 각각 알맞

14) “Er muoz gelichesame die leiter abewerfen, sô er an ir ufgestigen.” 이 말을 이동진은 “사다리가 튼튼해야 올라갈 수 있다,” 이윤기는 “지붕에 올라간 다음에는 누가 쫓아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치워야 한다”라고 각각 크게 또는 약간 잘못 번역하고 있다. 이동진, p. 493; 이윤기, p. 554.

15) Ernst Robert Curtius, *Europäische Literatur und Lateinisches Mittelalter* (Bern/München: Francke Verlag, 1948, 1973⁵). 영역본은 *European Literature and the Latin Middle Ages* (New York: Pantheon Books, 1953)이 있다; J. Huizinga, *Hersttij der Middeleeuwen* (Groningen: Wolters, 1919, 1984¹⁷). 우리말 번역은 『중세의 가을』(최용숙 옮김, 문학과지성사)이 있다.

16) 모든 텍스트는 텍스트의 그물 안에서 존재하며 텍스트의 상호 관계를 통해 생성, 흡수, 변형된다는 말 속에는 최초의 근원, 최초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영점 지대’를 텍스트 속에서, 또는 텍스트 밖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텍스트를 쓸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텍스트와 관계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텍

은 자리에 배치하여 흥미진진한 탐정소설을 만들어내었다는 점에서 에코의 천재성이 드러난다. 책을 다 읽고 난 독자는 첫째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일어난 사건과 해결 과정을 머릿속에 쉽게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장미의 이름』은 매우 질서 정연하게 짜여 있다. 요컨대, 에코의 소설은 수많은 텍스트로 짜여 있을 뿐만 아니라 책을 주제로 삼은 책에 관한 책이다.¹⁷⁾

4. ‘책’이란 존재

『장미의 이름』은 에코가 서문에서 “이것은 나날의 근심 걱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책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듯이 책에 관한 책이고, 책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는 책이다.¹⁸⁾ 책은, 그런데 여기서 중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수도원의 살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책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회극론)이 그것이다.¹⁹⁾ 『시학』 2권의 실존 여부에 관한 논란이 없지 않다. 하지만 소설 중에는 수도원 도서관에 보관된 『시학』 제2권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이 책이 다루고 있

스트를 쓰는 사람조차 자신의 텍스트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다. 텍스트는 언제나 나와 낯선 요소를 담고 있다. 텍스트를 읽는 행위에도 영점 지대가 없다. 이미 읽은 텍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자도 텍스트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고, 이런 의미에서 텍스트는 낯선 요소, 즉 나로부터 소외된 요소를 안고 있다. S. IJsseling, 앞의 글, pp. 172~73; S. IJsseling, *Retoriek en Filosofie* (Antwerpen/Bilthoven: Ambo, 1975), p. 165 이하 참조.

17) 『장미의 이름』의 상호 텍스트적 성격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서울: 민음사, 1992), pp. 218~22 참조.

18) 『장미의 이름』, pp. 5~6.

19) 『장미의 이름』, pp. 117~18, 466, 473 참조.

는 회극, 웃음, 풍자 등에 관한 논의가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끝에 가서야 사건 배후에 호르게라는 노인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만 이미 둘째날 도서관 필사본실에서 윌리엄과 호르게가 웃음을 두고 논쟁할 때 호르게는 웃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웃음은 회의를 낳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든다.²⁰⁾ 그래서 호르게는 웃음에 관한 책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을 다른 사람이 읽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 책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책을 찾아서 읽고자 하는 수도사들의 지적 호기심 때문에, 수도원에서는 한 사람씩 죽어간다. 『시학』 제2권은 여기서 금단의 책이다. 금단의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읽어보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고 읽고자 하는 욕망으로 책을 손에 든 사람은 책에 발라진 독으로 죽게 된다. 『시학』 제2권은 금단의 책이면서 욕망의 대상이며, 동시에 무서운 독을 담고 있는 살인의 책으로 그려진다.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도 ‘책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도서관 안에 있는 한 권의 책이다. 중세의 수도원은 바로 그 자체 책의 세계이었다. 베네딕트 수도회의 창시자인 성 베네딕트는 ‘수도원에는 반드시 책이 있어야 하고, 수도사들은 반드시 글을 배워야 한다’는 규칙을 정해두었다. 윌리엄이 도착했을 때 아보 원장은 자신의 수도원과 수도원 도서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책이 없는 수도원은 음식 없는 식탁, 약초 없는 정원, 꽃이 없는 들판, 잎새 없는 나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 수도회는 노동과 기도라는 두 가지 명제 아래 성장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인간 세계의 빛이 되고, 지식의 창고가 되고, 화재·약탈·지진으로 소멸의 위기에 처한 고대 학문의

20) 『장미의 이름』, p. 139.

구원자이며, 새로운 저술의 원천임과 동시에 옛 문헌의 증가에 힘쓰기도 하며 (……) 이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대단한 암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²¹⁾

원장은 책과 관련된 수도원의 사명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수도사라는 사람들도 책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다. 살인 사건을 수사해가는 과정에서 윌리엄은 벤노에게 이렇게 말한다.²²⁾

우린 지금 책 속에서 책과 함께 책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책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중요합니다.

벤노는 이렇게 답한다.

그건 그렇습니다. 우린 책을 위해서 살죠. 무질서와 부패로 가득찬 이 세상에선 편안한 임무입니다.

중세인들은 지도자들조차도 대개 글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수도사들은 반드시 글을 배웠고 책을 필사하고 전수하고 보관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였다. 그들은 책 속에서 책과 함께 책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

책과 책 사이에는 그물로 연결된 조직이 있다. 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책과 책 사이의 상호 관계로 존재한다. 책은 항상 다른 책과 관계하고, 다른 책을 인용하고, 다른 책을 통해 존재한다.²³⁾ “왜요? 한 책의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다른 책을 여럿

21) 『장미의 이름』, p. 38.

22) 『장미의 이름』, p. 117.

23) “그런데 나는 이런 읽기 과정[중세의 연대기를 읽는 가운데]에서 나는, 작가가

읽어야 하다니요?”라는 앓조의 질문에 대해 “때로는 그래. 책이 책에 대해서 말할 때가 많거든. 무해한 책이 위험한 책으로 발전하는 작은 씨가 되는 일도 적지 않거든”이라고 윌리엄은 답한다.²⁴⁾

책이란 책 밖에 존재하는 현실에 관해 이야기한다고만 생각해왔는데 책은 책끼리 서로 이야기한다고 앓조는 들은 것이다. 그리고 보니, 도서관은 더욱더 골치 아픈 존재로 다가왔다. 수세기에 걸친 속삭임, 양피지끼리 나누는 불가해한 대화의 장소, 살아 있는 생물, 인간 정신의 지배에서 벗어난 권력의 그릇, 수많은 지성이 배출한 비밀의 보물 창고, 비밀을 생산하거나 전승한 사람들의 죽음마저 초월한 존재가 도서관으로 보였다. 도서관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의 미로였다.²⁵⁾

책은 새로운 생각과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건물 위에 돌맹이 하나를 더한다는 생각을 중세인들은 가지고 있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앉은 난쟁이’ (사르트르의 베르나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었다.²⁶⁾ 그러므로 중세의 학자들은 대개 과거의 중요한 텍스트를 해석하고 옮겨쓰고 이해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의 구성을 보라. 예컨대,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Pro”)을 한편에 제시하고 다른 편에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Contra”)을 늘어놓는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는 각각의 주장을 따진 다음 자신의 생각(“Respondeo”)

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그래서 우리에게 누누이 일러왔던 것)을 재발견했다. 그것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미 세상에 유포된 다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에코, *Postscript*, p. 20(이윤기, p. 36).

24) 『장미의 이름』, p. 289.

25) 『장미의 이름』, p. 164 참조.

26) 『장미의 이름』, p. 91 참조.

을 내어놓았다. 이것이 바로 스콜라 철학 방법으로 후에 변증법(정·반·합)으로 발전되었다. 이때 찬반의 명제는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철학자와 텍스트를 빌려와서 이야기한 것이었다. 현대 논리학은 이러한 논변을 권위에 의한 논변으로 오류 추리 속에 넣지만 중세인의 관점은 정반대이었다. 그들은 권위 있는 책들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논거로 생각했다. 윌리엄과 호르게가 웃음에 대해 논쟁을 벌일 때도 끊임없이 서로 과거의 텍스트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전형적인 중세인이었다.

『장미의 이름』에서 책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베렌가리오가 아델모를 무덤가에서 만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손바닥이 뜨거운 무엇에 의해 구멍이 파이는 경험을 했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다른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마치 본 것처럼 그려낸 것이다. 우베르티노가 돌치노파의 수도승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사실은 책에서 인용하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실제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리고 앳조가 이름 모르는 소녀와 사랑을 나누는 것도 『아가서』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전 개한 것이다.²⁷⁾ 텍스트라는 현실을 창조할 뿐 아니라 실제 사건을 주도하기도 한다. 『요한 계시록』과 수도원의 사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아델모는 수도원 바깥 눈 위에 떨어져 죽었다. 베난시우스는 돼지 피를 담은 통에 머리를 처박은 채 발견되었다. 베렌가리오의 목욕탕에 빠져 죽어 있었다. 이렇게 하루하루 『요한 계시록』(8장 6절 이하)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

27) 『장미의 이름』, pp. 123~24, 247 참조.

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은 썩이라.

각본은 실제로는 허구였다. 호르게가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 (계시록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쓴 것이었다. 그러나 호르게 자신은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묵시록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이렇게 책이라는 것은 단지 사건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5. ‘세상’이란 책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책의 세계’ 도서관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가 책이라는 생각이 『장미의 이름』에 담겨 있다. 세상이 곧 책이라는 생각은 중세적 사고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다.

착한 앗조야. 여행하는 동안 내내 가르친 게 무엇이었지? 위대한 교과서처럼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가지고 증거를 포착하라고 하지 않았나? 인술리스의 알라누스가 이렇게 말했다. “온 세상 만물이란 마치 책과 그림처럼 우리에게 거울로 반사된다 *Omnis mundi creatura, quasi liber et pictura nobis est in speculum.*”²⁸⁾

28) 『장미의 이름』, p. 25.

이 세상을 책으로 보는 전통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하느님은 두 권의 책을 썼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이란 책이다. 생 빅토르의 휴고, 보나벤투라 등도 세상을 책으로 보았다. 이 세상은 하나님 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는 그 속에 담긴 글과 뜻을 읽어낼 수 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이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자연'은 하나의 펼쳐진 책인데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수학적 이성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소설 중의 월리엄 수사는 중세적 입장에서 근대적 입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보여준다. 근대에 와서는 설사 세계를 책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책은 우리가 쓴 텍스트이지 우리 바깥의 어떤 존재를 통해 씌어진 텍스트가 아닌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중세인의 생각에 따르면 세상이란 책은 읽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의미 있는 텍스트로 존재한다.²⁹⁾

세상이 하느님의 책이라는 비유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느님은 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책이란 비유는 말해준다. 세상은 하나의 기호요, 하나의 흔적이다. 그러므로 흔적과 기호를 잘 추적하면 이 세상을 지은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중세의 상징신학을 대표하는 디오니시오스 아레오파기타, 인슐리스의 알라누스, 생 빅토르의 휴고가 이와 같은 사상을 내세웠다.³⁰⁾ 그들에 따르면 무한한 것은 유한한 것에 자신을 표현한다. 따라서 유한한 것은 무한

29) 중세의 '책'의 비유에 관해서 자세한 것은 E. R. Curtius, 앞의 책, pp. 306~52(영문판, pp. 302~47), 특히 pp. 323~29(영문판, pp. 319~26) 참조.

30) 중세 기호학과 에코의 『장미의 이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Theresa Coletti, *Naming the Rose*(Ithaca/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pp. 1~38 참조.

한 것의 상징이다. 자연 전체가 하느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요, 기호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기원을 가리키는 기호요 상징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중세 기호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물 *res*’과 ‘기호 *signum*’를 구별하지만 ‘사물’도 하나의 ‘기호’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³¹⁾ 앓조가 전날 밤 부엌에서의 이름 모를 소녀와의 정사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정원을 거닐면서 하고 있는 생각에 중세의 상징신학이 잘 반영되어 있다. 여자와 결합할 때 느낀 격렬한 쾌감, 죄악의 덧없는 천한 감각은 잊어버렸으나 “여자의 얼굴은 내 영혼이 망각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는 앓조는 온갖 사물 속에서 여자의 모습을 본다.

사실 나는 여자를 ‘보았다.’ 추위에 떠는 참새가 피난처를 구하려 날아드는 앙상한 나뭇가지에서도 여자를 보고 헛간에서 나오는 어린 암소의 눈에서도 보고, 잘못 든 내 길을 가로질러가는 양떼의 울음 소리에서도 여자의 음성을 들었다. 세상 만물이 여자에 대해 말하려 하는 듯했다. 참으로 다시 보고 싶었다. 만일 그날의 충만한 기쁨을 향유할 수 없고 설령 영원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여자가 한번만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한다면, 다시는 만나지 않고 다시는 함께 눕지 않을 각오도 되어 있었다. 지금이야 깨닫는 일이지만 [이어서 앓조는 생 빅토르 휴고의 말을 인용한다] 하느님의 손가락이 쓴 책과 같은 온 우주 속에서는 만물이 창조주의 무한한 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다시 인슐리스의 알라누스의 말을 빌려] 만물이 삶과 죽음의 형상이자 거울이며, 가장 비천한 장미가 지상의 우리의 발전의 광채가 되는 것과도 같이, 만물은 부엌의 향기로 온 그들에서 얼핏 본 얼굴만 내게 말해줄 따름이었다.³²⁾

31) Augustinus, *De doctrina christiana* I, II, 2.

32) 『장미의 이름』, p. 282.

만물은 하느님의 손길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가 하는 것도 만물을 통해 볼 수 있다. 알라누스는 ‘장미’를 아름다움과 허망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으로 쓰고 있다.

6. 장미의 이름

에코는 그의 책이름을 『장미의 이름』이라고 붙여놓았다. 이 제목은 모를레이의 베르나르의 『세상의 멸시에 관하여 *De contemptu mundi*』(1140년경) 가운데서 “태초의 장미는 이름으로 존재하나 우리는 빈 이름만을 가지고 있다 *Stat rosa pristina nomine, nomina nuda tenemus*”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³³⁾ 바빌론의 영광, 그 두려웠던 느브갓네살, 힘있던 다리우스와 유명하던 키레스(고레스)는 이제 어디 있느냐고 베르나르는 묻는다. 세상의 부귀와 권력, 세상의 영광은 이름만 남을 뿐 그외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말았다. 여기서 장미는 알라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허망함을 상징한다. 장미는 과거의 아름다움을 잃고 이제는 이름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미의 이름’을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구절로 해석했다.³⁴⁾ 여기서 줄리엣은 실체가 중요할 뿐 이름은 전

33) 『장미의 이름』, p. 498. 이 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여 위의 구절로 끝난다. “Est ubi gloria nunc Babylonia? nunc ubi dirus/Nabugodonosor, et Darii vigor, illeque Cyrus? [...] /Nunc ubi Regulus? aut ubi Romulus, aut ubi Remus?/Stat rosa pristina nomine, nomina nuda tenemus” (Johan Huizinga, *Herfsttij der Middeleeuwen*, p. 135에서 인용).

34) “Tis but thy name that is my enemy;/Thou are thyself though, not a Montague./What's Montague? It is nor hand, nor foot,/Nor arm, nor face, nor any

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보인다. 이름은 실체가 아니며 사물 자체의 본질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장미란 하나의 이름에 불과하며, 다르게 이름붙인다고 하더라도 실체는 여전히 실체 그대로 남는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에코는 정반대의 것을 의도했다고 말한다. 실체는 모두 사라지고 남아 있지 않다. 과거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들은 덧없이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그것들은 오직 이름으로만 남아 있다. 중세 논리학자 아벨라르두스에 따르면 ‘장미라는 이름 *rosae nomen*’은 그 이름으로 지칭할 장미가 없더라도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내포는 갖지만 외연은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아벨라르두스는 의미 *significatio*와 지칭 *appellatio* (또는 *nominatio*)을 구별한다.³⁵⁾

하지만 장미의 이름을 반드시 유명론의 방향에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모를레이의 베르나르 말을 인용할 때 에코 자신은 그것을 인간 존재의 허망함과 관련해서 보았고 앓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장미는 여자를 상징한다.³⁶⁾ 『장미의 이름』의 마지막 구절은 이름 저편의 실체, 수도원 부엌에서 만났던 이름 모를 처녀의 따스한 몸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담고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이름있는 것들은 오직 이름만이 남지만 장미 향기를 입술로 전해주던 소녀, “눈은 헤슈본의 연못

other part/Belonging to a man. O, be some other name!/What's in a name! that which we call a rose/By any other name would smell as sweet [...]" (Shakespeare, *Romeo and Juliet* II, 1, 82~88).

35) 이러한 구별은 이미 페트루스 히스파누스(Petrus Hispanus (1205~1277))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L. M. de Rijk, *Middeleeuwse Wijsbegeerte: Traditie en Vernieuwing* (Assen: Van Gorcum, 1981), pp. 235~59 참조. 히스파누스가 든 예는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따라서 이 이름으로 지칭할 대상은 없지만) 그것이 뜻하는 의미(내포적 의미)는 타당하다.

36) “여자의 입술에서는 장미의 향기가 흘렀고 새들을 신은 발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장미의 이름』, pp. 249, 282, 498 참조).

처럼 맑고, 코는 레비논의 탐 같고, 머리털은 자줏빛”인 여자는 이름도 없이, 늙은 수도사의 머리에는 그 얼굴과 몸의 따스함으로 남아 있다. 여인과의 경험을 앗조는 ‘신비적 연합’의 체험으로 그리고 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달처럼 아름답고 태양처럼 맑고 군대처럼 두려우며 새벽처럼 일어난 이 여자는 누구인가? 오, 주님, 영혼이 떠날 때 유일한 덕은 당신이 보는 것을 사랑하는 데 있고(진실이지 않은가?), 지고의 행복은 당신이 가진 것을 소유하는 데 있으며, 거기서 당신은 행복한 생활의 샘플을 마시고(이미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죽은 뒤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누릴 진실한 삶을 거기서 당신은 맛보고 있으니…… 그런 생각을 하자 모든 예언이 드디어 실현되는 듯했다. 여자가 형언할 수 없는 감미로움을 뿜어냈던 것이다. 내 온몸은 앞으로 뒤고 모두 눈으로 변했는지 문득 주변의 모든 것이 보였다. 그때, 거기서, 사랑으로 일치와 부드러움이 선과 입맞춤과 충족처럼 함께 창조됨을 깨달았다.³⁷⁾

그와 같은 경험 뒤에 오는 허무감 *Omne animal triste post coitum*과 죄책감에 시달렸던 순간을 앗조는 기억에 떠올리고 있다. 그렇지만 “해가 바뀌고 바뀐 지금도, 그 죄를 통렬히 뉘우치지만, 그날 밤 맛본 엄청난 쾌감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때의 경험을 되뇌고 있다. 장미는 이름으로 남지만 그때, 그 처녀는 이름은 없이 그때의 따스함만으로 노년의 수도사에게 남아 있다.

37) 『장미의 이름』, p. 250.

7. 진리 · 폭력 · 웃음

『장미의 이름』에 만일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진리에 충실한 것인가 하는 물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은 기호와 진리의 관계, 그리고 진리와 폭력의 관계로 좁혀볼 수 있다. 호르헤란 인물은 자신이 생각한 바대로의 기독교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 가장 해롭다고 생각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였다. 호르헤는 어떠한 비판도, 어떤 상대화나 회의도 허용하지 않았다. 『시학』 제2권은 어떠한 회의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그것은 곧 웃음에 대한 거부와 연결된다. “난 웃음이란 목욕처럼 육체의 기능 불순과 기타 질병, 특히 우울증을 고쳐주는 좋은 약이라고 믿는데요”라는 윌리엄의 말에 대해 호르헤는 “목욕은 좋은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도 슬픔을 달래는 데 목욕이 좋다고 권했으니까요. [……] 하지만 웃음은 육체를 움직여 얼굴 모습을 왜곡시켜 사람을 원숭이 비슷하게 만듭니다”라고 응수한다.³⁸⁾

솔즈베리의 존은 점잖은 회색을 허가했습니다. 또 당신이 예로 든 수도원 규칙이 있는 전도서에는 웃음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성이지만 평온한 정신으로 소리없이 웃는 것은 최소한 허용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³⁹⁾

라는 윌리엄의 반론에 대해 호르헤는 이렇게 답한다.

정신은 오직 진리를 묵상하고 성취하는 선을 기뻐할 때만 평온한 겁니

38) 『장미의 이름』, pp. 137~38.

39) 『장미의 이름』, p. 139.

다. 그리고 진리와 선은 웃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웃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웃음은 회의를 낳습니다.⁴⁰⁾

웃음은 사악한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이성애 맞지 않는 모순된 명제의 거짓 권위를 무너뜨리는 데는 웃음이 때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윌리엄 수사의 생각에 대해서도 호르게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 도서관 안에서 윌리엄과 호르게가 최후의 싸움을 할 때도 호르게의 입장은 단호하다.

웃음이란 우리 육체의 나약·타락·어리석음입니다. 웃음은 촌놈들의 오락이고 술주정뱅이의 응답패설이며, 심지어는 지혜를 간직한 교회에서 조차 축제니 사육제니 하여 우울한 기분을 방출하고 야망의 망각을 유도하는 이 일시적인 오염을 허용하지만〔……〕웃음은 여전히 천박한 것이며 단순한 사람들의 방패이거나 일반 대중들을 세속화시키는 신비일 뿐입니다.⁴¹⁾

윌리엄에 따르면 웃음이란 생기를 복돋아주는 것이지 타락하고 나약한 것이 결코 아니다. 사람이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 윌리엄의 생각이었다. 한바탕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지함과 엄숙함으로 포장된 허위를 들추어내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윌리엄 수사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웃음조차 거부한 호르게에게 윌리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40) 같은 곳.

41) 『장미의 이름』, p. 478.

“당신은 악마입니다.”

호르게는 못 알아들은 모양이었다. 시력이 있었다면 상대방을 어리둥절한 시선으로 쳐다보았을 것이다. 호르게가 반문했다.

“내가?”

“그렇습니다. 당신은 속은 겁니다. 악마는 물질의 왕자가 아닙니다. 악마란 정신의 오만, 웃음이 없는 신앙, 한번도 의심을 받지 않은 진리입니다.”⁴²⁾

월리엄이 볼 때, 건전한 신앙이란 언제나 웃음이 깃들여 있으며, 의심할 수 있고, 웃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신앙은 오히려 악마적이다. 이러한 태도는 이단에 대한 월리엄의 태도에도 엿보인다.

“그렇다면 누가 옳았습니까. 지금 누가 옳습니까. 누가 잘못이었습니까.”

“모두 각자 나름대로 옳았지. 또 모두 잘못했고.”⁴³⁾

수도원장과 토론할 때 월리엄은 이른바 ‘이단’이라 불리는 파타리니파·카타리파·보고밀파 등에 대해서 상당히 동조적인 입장을 취한다.⁴⁴⁾ 월리엄이 볼 때 돌치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청빈과 가난을 실제 몸으로 실천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수도원장은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월리엄, 당신은 이단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이단자와 비슷하게도 보이는데,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보십시오.”

42) 『장미의 이름』, p. 478.

43) 『장미의 이름』, p. 209.

44) 『장미의 이름』, p. 159.

윌리엄이 슬픈 어조로 대답했다.

“때로는 아무데도 없습니다.”⁴⁵⁾

호르게에겐 진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목숨 걸고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윌리엄이 볼 때 이것은 오만이었다. 호르게가 생각한 오만은 호기심 *curiositas*, 곧 인간의 지적 교만이었다. 호기심은 모든 악의 근원이었다.⁴⁶⁾ 그러나 윌리엄은 의심 없는 신앙, 회의하지 않는 태도가 오만이었고 악의 원천이었다. 도서관이 화염에 휩싸여 있을 때 윌리엄은 앳조에게 이렇게 말한다.

호르게. 철학에 대한 증오로 일그러진 그 얼굴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적의 초상을 발견했어. 그리스도의 적은 선구자들이 말했듯이 유다지파에서 또는 먼 나라에서 오는 것이 아냐. 이단자가 성인 중에서, 신들린 사람이 점쟁이에서 나오듯 그리스도의 적은 경전 그 자체에서, 하나님 또는 진리에 대한 과도한 사랑에서 나올 수가 있어. 앳조, 너는 예언자들과 진리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라.⁴⁷⁾

회의와 웃음을 결들이지 않은 진리에 대한 절대 충성은 결국 폭력을 낳는다. 그리스도의 청빈에 대한 존중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자들에게 대한 살육을 서슴지 않았던 프라 돌치노, 끝없는 마녀 사냥과 이단 재판을 자행한 베르나르도 귀(구이도)와 교황청, 기독교 세계에 이방인의 지식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자 했던 호르게, 이 모두가 사실 진리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한 경우다. 그러므로 윌리엄은, 모든 종류의 테러리즘은 진리에 대한 맹신으로부터 산출된다는 것을

45) 『장미의 이름』, p. 159.

46) Augustinus, Confessiones X, xxxv, 54 참조.

47) 『장미의 이름』, p. 491.

앗조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다.⁴⁸⁾

아마도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명은 사람들이 진리를 향해 웃도록, '진리가 웃도록' 만드는 데 있을 거야. 유일한 진리는 진리에 대한 광적인 정열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을 배우는 데 있기 때문이지.⁴⁹⁾

8. 기호의 상대성과 기호 너머의 세계

월리엄의 이와 같은 태도는 기호에 관한 그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호르게는 기호에 대해 불신한다. 그것이 문자로 적혀 있든 그림의 형태든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상의 사물이든 어떤 것도 '진리 자체'를 드러내주지 못한다. 기호는 기호일 뿐 진리와 구분된다. 기호는 진리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진리를 파괴하고 왜곡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호르게는 어떤 그림도, 어떤 상징도, 어떤 해학과 웃음도, 어떤 회의도 허용할 수 없었다. 진리는 오직 명상을 통해 정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리는 더 이상 보충될 필요도, 혁신될 필요도 없다. 이미 알려진 진리는 제대로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월리엄은 진리란 늘 기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앗조, 기호의 진리에 대해 난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이 세상에서 인간이 자기 방향을 잡는 데는 이 기호뿐이야. 내가 이해 못 한 것은 이 기호들간의 관계지. [……] 사악하고 논리적인 정신의 소유자의 계획을

48) 볼로냐역에서 알도 모로와 200여 명의 여행객이 테러단의 폭발물로 살해된 지 얼마 뒤에 『장미의 이름』이 씌어졌다는 사실을 IJsseling은 지적한다. S. IJsseling, *De naam van de roos*, p. 117.

49) 『장미의 이름』, p. 492.

추적하다가 호르게에게 닿았지만 그런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어. 아니, 오히려 호르게가 최초의 자기 계획에 압도되고 나자, 원인, 유사 원인, 서로 모순되는 원인이 서로 꼬리를 물고 각 원인이 독자적인 작용을 하는 바람에 계획 없이 발생한 이상한 관계를 형성했지. 그러면 내 지혜는 어디 있던 말인가. 우주에는 질서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야 될 때 나는 질서와 유사한 것을 추구하면서 완고하게 행동했지.⁵⁰⁾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은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확인할 증거와 자료(흔적과 기호, 징표)를 수집하고 검증한 뒤 해석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방법에는 늘 한계가 있고 알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되어 있다. 윌리엄은 세계의 질서와 그것에 대한 개념적 파악 가능성을 믿었던 중세의 거대 형이상학(‘옛 길 *via antiqua*’)에 대해 로저 베이컨, 오컴, 스코투스의 반형이상학적·기호학적 철학(‘새로운 길 *via moderna*’)을 따른다.⁵¹⁾ 이 철학의 특징은 ‘세계의 우연성,’ 즉 현실 속에는 필연적으로 정해진 질서가 없고 모든 것은 신의 절대 의지에 달려 있다는 믿음이다. 세계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 외에, 그것이 왜 그렇게 있지 않으면 안 되는가 물을 필요가 없게 된다. 세계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존재할 뿐이다. 세계가 이렇게 있는 것은 하느님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다.⁵²⁾ 그러므로 학자의 일이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어진 그대로 기술하는 것으로 족하다. 세계는 우리가 기호를 매개로 탈출구를 찾아야 할 일종의 미로이다.⁵³⁾

이와 같은 입장은 우리의 인식과 세계 구조를 동일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이에 거리가 있게 한다. 우리의 인식은 기호로 구성

50) 『장미의 이름』, p. 492.

51) 『장미의 이름』, pp. 211, 319 참조.

52) 『장미의 이름』, p. 493.

53) 『장미의 이름』, p. 164.

되어 있으며 이 기호는 세계 구조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오컴의 윌리엄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은 현실에 관한 기호에 관한 것이고 보편 개념을 다룰 때는 단지 ‘기호의 기호 *signa signorum*’를 다루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기호가 있는 개별자에 불과하다.⁵⁴⁾ 바스커빌의 윌리엄도 이 점에서는 오컴과 동일한 입장을 보인다. 이들의 이론은,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상징으로 보던 12세기의 ‘형이상학적 기호학’에 대해 ‘인식론적 기호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인식론적 기호학이 반성하는 기호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사물의 표상이다. 기호는 사물과 갖는 유사성보다는 사물을 지칭하는 데서 그 고유한 기능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확실성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기호를 더듬어 현실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처한 삶의 조건이라는 생각이 여기에 들어 있다. 절대 진리에 대한 맹신보다 오히려 인간 존재의 애매성, 기호의 이중성, 현실적 구체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이와 같은 의식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모두가 기호일 수 있다 하더라도, 기호를 넘어서 현실을 앗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시작하는 소설 초두에서 이미 기호를 통해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지적한 뒤,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하나의 완결된 원을 그려놓고 있다. 기호를 넘어서 현실은 그러나 우리가 언어로 그릴 수 있는 감각 세계가 아니라 그것은 모든 구별과 차이, 무와 존재, 여기와 거기, 지금과 과거를 뛰어넘은 세계이다. 그곳에 이를 수 있는 길은 그러므로 오직 침묵밖에 없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침묵뿐이다. 아, 고독 속에 앉아 입을 다

54) 『장미의 이름』, p. 211 참조.

물고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는 얼마나 유익하고 행복하고 또 얼마나 감미로운가! 이제 곧 나는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그곳이 우리 수도회의 원장들이 내게 말해준 영광의 그 하느님도, 작은 형제회 수도자들이 늘 믿어온 환희의 그 하느님도, 또 어쩌면 경건의 그 하느님도 아니라고 믿는다. 하느님은 전적으로 비존재의 존재이므로 ‘지금’도 ‘여기’도 그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Gott ist ein lauter Nichts, ihn rührt keine Nun noch Hier*. 나는 곧 완전한 수평의 끝 없이 이 광대한 사막으로 들어설 것이다. 거기서는 진실로 경건한 가슴이 회열 속에 쓰러질 것이다. 나는 하느님의 그늘, 말없는 고요,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일치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며, 이 침묵에는 모든 평등, 모든 불평 등이 사라지고, 그 심연 속에서 내 영혼은 자아를 망각하고 평등이나 불평등을 모르게 될 것이다.⁵⁵⁾

하지만 끝에서 앗조는 필사본실의 현실로 되돌아온다. 금방 올라갔던 사다리를 타고 되돌아와 문자와 기호, 필사본과 책의 세계 속에 앉아 있다. 그곳은 춥고 손가락이 아픈 처참한 현실이다. 이 세계에 의미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저 너머의 세계에 있으나 지금, 여기에는 단지 이름과 기호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진리가 아무리 애매하게 보인다 해도, 또 순전히 악에 기울어진 인간 의지와 뒤섞여 존재한다 해도, 우리는 진리를 밝혀주는 기호(징표)라면 남김없이 포착해야 한다.”⁵⁶⁾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55) 『장미의 이름』, p. 498. 이 부분의 인용은 거의 다 요한 호이징가의 『중세의 가을』 16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앞의 책, pp. 216~30 참조.

56) 『장미의 이름』, p. 11.